

# 未知를 찾아...TV예능 프로그램, 우주에 눈돌리다



TV 예능 프로그램의 끝은 어디일까. '무한도전' '1박 2일' '정글의 법칙' '꽃보다 할배' 등 변신과 과거를 거듭하던 예능이 드디어 우주까지 진출했다.

SF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우주 과학 예능이 오는 7월 케이블채널 tvN의 전파를 탄다.

김병만, 하지원, 구구단 세정 등의 출연이 확정된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다.

제목에서 보듯이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예능에서 다루지 않았던 우주를 주요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지의 우주란 예능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었다. 다큐멘터리나 SF 영화의 배경이었던 예능의 테마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SBS에서 tvN으로 회사를 옮긴 이영준 PD가 오랜 준비 끝에 우주를 예능 안으로 끌어들였다.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는 최근 과학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화성 탐사'를 골격으로 한다. 김병만 등 출연자들이 화성탐사 연구의 메카인 미국 유타주의 화성탐사연구기지(MDXS)를 방문해 과학자들이 하듯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MDXS는 실제 화성탐사를 위해 화성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연구하는 곳이다.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 맷 데이빈이 화성에

tvN, 7월에 '갈릴레오...' 방송...김병만 등 '화성인의 삶' 체험 채널A 음악프로 '우주를 줄게'...밤하늘 별보고 노래하는 방식

홀로 남겨져 감자를 키우고 기상과 토양을 분석하는 것과 같다. 김병만 일행은 다음 달 미국으로 출국해 약 일주일간 머물며 '화성인'의 삶을 체험한다.

이 PD는 "언젠가는 우주과학 버라이어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SF 버라이어티를 하게 됐다. 여기서 SF는 사이언스 픽션(Fiction)이 아니라 사이언스 팩트(Fact)"라며 "약 3~4개월간의 실습 끝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MDXS 촬영 허가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같은 예능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다큐멘터리에 버금가는 진지함과 전문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PD는 "MDXS가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이해한 뒤에는 우리 출연자들에게 일반 과학자들처럼 정식 기수도 허가했다. 제1967기로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처럼 진지한 우주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우주 소재가 가볍고 편안하게 다뤄진 적은 있다. 얼마 전 종영한 MBC '무한도전'에서, '무

한도전'은 방송 10주년 기획으로 2016년 초부터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방송했다. 처음엔 '암흑적응훈련' '무중력 식사법' 등을 재치있게 패러디해 보여줬고, 나중에 러시아 가가린 우주선터를 방문해 '무중력 비행'을 체험했다. 대형 수송기가 급강하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무중력 상태를 느껴보는 적응훈련을 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김태호 PD는 "'무한도전'을 13년간 이끌면서 스토리텔링이 탈탈 털린 기분을 지나 이에 건조기에 넣어 말려진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하지만 검은 우주를 못 올라가 보고 정리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우주탐사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내영석 PD가 새로 론칭한 숲 속의 작은 집'이나 채널 A의 '우주를 줄게(오른쪽 사진)'는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우주 예능으로 불릴 만하다.

'숲 속의 작은 집'은 요즘 유행하

는 자율감각 캐러밴용(ASMR) 방송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불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채집해 가공하지 않고 들려주는 것인데 의외로 인기가 높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은 심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시집, 박신혜 등 출연자들은 마치 우주의 미아처럼 외딴집에서 세상 문명과 단절된 채 자급자족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우주를 줄게'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다만 기존의 음악 예능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띤다. 출연자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머리에 떠오르는 음악을 하는 식이다. 역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갈릴레오: 깨어난 우주'를 통해 예능에 첫발을 딛는 하지원은 "평소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안받아 출연을 결심했다"며 "'우주 예능'이라는 신개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설레고 긴장된다"고 말했다.

## '검법남녀', 월화극 2위..정재영X정유미 新공조 통했다



MBC '검법남녀' 정재영과 정유미의 특별한 공조로 새로운 증거를 찾으며 수사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

는다.

22일 방송된 MBC 새 월화드라마 '검법남녀' (극본 민지은 원영실/연출 노도철 현라희/제작 HB엔터테인먼트) 7, 8회는 각각 닐슨 전국 기준 5.0%, 6.3%의 시청률을, 수도권 기준 5.9%, 6.5%를 기록했으며 2049 시청률은 각각 2.8%, 3.0%로 동시간대 2위를 경신한 가운데, 은솔(정유미 분)이 범인의 위협에서 벗어나 눈을 떼 수 없는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은솔이 용의자인 최화자를 만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때 마침 달려온 차수호와 강동식의 도움으로

최화자를 체포하게 된다. 최화자는 변수경의 살인을 인정하지만 장독남에 대한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인 가운데 백골이 장독남의 것이 아닌게 밝혀지며 사건은 또 다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결국 백범의 활약으로 최화자가 재산을 노리고 장독남을 살해한 뒤 자신의 손으로 죽인 내연남과 시체를 바꾸며 자신의 아이를 장독남의 핏줄로 만들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이어 은솔이 아이의 친부가 장독남인 것을 밝히자 최화자는 자신의 벌인 일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건이 풀이 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7, 8회에서는 은솔과 은솔부의 다툼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현재 은솔이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반대로 가족들은 은솔이 오빠를 위해 시집을 가길 바라는 모습이 그려졌다. 걸으

론 '금수저'란 타이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지만 막상 벤치에 앉아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하지 못한 채 홀로 있는 은솔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처럼 '검법남녀' 7, 8회에서는 유산을 둘러싸고 가까운 가족들은 물론 아내의 감춰진 어두운 면을 리얼하게 다루며 몰입도 높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또한 갈수록 심신하면서 긴장감 높은 사건을 더해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백범과 은솔이 이웃사촌이 되며 두 사람의 티격태격할 모습이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더욱이 아직 백범의 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강연과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져가고 있다.

한편 이이정이 여인 세 번째 사건의 서막을 예고한 MBC '검법남녀'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 '독전', 범죄물 흥행 新역사 쓸까



영화 '독전'이 본격적인 흥행 질주를 시작했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독전'(이해영 감독)은 22일 하루 동안 37만 654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했다.

'독전'은 한국 영화로는 무려 6주 만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한국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11일 '비밀 비탕 바람'(이병헌 감독)이 정상에 오른 지 무려 42일 만이다. '독전'은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부터 '데드풀'까지 이어진 마블 히어로물의 정상 독주를 막고 마침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독전'은 개봉 당일 37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2018년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3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데드풀'의 오프닝 관객수를 뛰어넘음과 동시에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와 칸을 휩쓴 '버닝'(이창동 감독)까지 제치며 패조의 스타트를 알렸다.

이러한 '독전'의 오프닝 기록은 청룡 영화 역대 흥행 1위에 오르며

범죄물 대표 흥행작이 된 '내부자들'(23만 949명)과 지난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범죄도시'(16만 4399명), 그리고 수많은 팬덤을 양성한 '신세계'(16만 8935명)의 오프닝 스코어도 뛰어넘은 것. 개봉 전부터 웰메이드 노아의 탄생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독전'이 범죄 영화 흥행작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록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포인트.

무엇보다 '독전'은 관객들의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독전'은 개봉 이후 실관객들의 매우 높은 관람 만족도로 호평 일색 입소문을 이어가고 있다. 입소문에 힘입어 '독전'은 23일 현재 '데드풀'을 꺾고 32.7%로 예매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22일 개봉 당일 예매율을 역전시킨 '독전'은 '데드풀'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독전'을 향한 뜨거운 반응은 국내 뿐만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독전'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독전'은 제1회 칸국제영화제(이하 칸영화제) 필름 마켓에서 성공개런 후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독전'은 북미, 대만, 오세아니아 등은 물론, 일본, 남미,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6개 국가에 관객이 판매되며 해외에서도 이어진 '독전' 신드롬을 예고했다.

'데드풀'을 꺾고 본격적인 흥행에 시동을 건 '독전'. 독한 재미, 독특한 캐릭터로 박스오피스를 석권한 '독전'의 독보적 흥행 질주에 관심이 쏠린다.

## 펀치, 내일 신곡 '이 밤의 끝' 발매...밤 3부작 완성

가수 펀치(Punch)가 오는 25일 신곡을 발표한다.

23일 소속사 남남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펀치는 25일 싱글 앨범 '이 밤의 끝'을 발표한다.

이번 신곡은 앞서 발표한 펀치의 '밤이 되니까', '오늘밤도'에 이어 '밤 3부작'을 완성하는 마지막 이야기로 될 예정이다.

이번 신곡 '이 밤의 끝'은 펀치의 첫 번째 싱글 앨범 '밤이 되

니까'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시퀀(Sequel)' 버전이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두 번째 싱글 '오늘밤도'가 '밤이 되니까'의 앞선 이야기인 프리퀀(prequel) 버전이라면, 신곡 '이 밤의 끝'은 '밤이 되니까'의 뒷이야기를 담았다.

'밤이 되니까'를 통해 슬한 잔을 기울이며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노래했다면, 신곡

'이 밤의 끝'을 통해서 연인은 떠나보내며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여자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펀치는 랩과 보컬 모두 소화 가능한 실력과 여성 솔로 가수로 일찌감치 리스너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Everytime', '도깨비' OST 'Stay With Me', '달의연인-보보경심 려' OST 'Say Yes' 등 다수의 인기 드

라마 OST에 참여하며 'OST 요정'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 공개된 펀치의 '밤이 되니까'는 발매 후 입소문을 타며 차트를 역주행을 이뤄내며 2017년 새로운 역주행 아이핀으로 등극한데 이어 지난 2월에 공개한 '오늘밤도'도 차트 상위권에 등극하며 음원강자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한편 펀치는 오는 25일 세 번째 싱글 앨범 '이 밤의 끝'을 발표한다.

뉴스

###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음력 4월 10일)

<p>▶<b>신세</b>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 사귀는 것을 신중히 하라. 황재하는 것도 역시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슬픔과 즐거움이 있다. 4, 8, 10월생 지혜롭게 찾으라.</p>	<p>▶<b>음세</b> 모임도 좋고 여행도 좋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마라.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1, 3, 5월생 고민이 많구나. 혼자만 아는 것 같겠지만, 남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라. 마음을 비우고 가정에 신경 쓸 때다.</p>	<p>▶<b>음세</b>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반복했지만, 차차 운이 열려 계획한 것을 조금씩 성취할 수 있다. 여러 부채가 있는 것 중 연상의 사람 것부터 갚아야 안정도 받고 관재도 면하며 운이 풀린다.</p>
<p>▶<b>신세</b>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한 상태다. 마음이 비어있어 어느 것이든 만족하지 못하는 격이다.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을 보일 때 모든 일은 순조로워지고 편안해진다. 그, 사, 비 성씨 믿는 마음을 가지라.</p>	<p>▶<b>음세</b>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협조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뺐으라. '내 것이다'고만 생각하고 멋대로 하다가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릴 듯. 그, 나, 사 성씨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아량이 필요.</p>	<p>▶<b>신세</b>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하니 권위도 높아지고 경사도 있겠다. 현명한 판단으로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진행하면 좋을 듯. 4, 7, 9월생 애정도 포기하게 감싸주고 신경도 써주며 너그럽게 이해할 때 좋은소식 들려 온다.</p>
<p>▶<b>음세</b> 지금까지 암울했던 일은 모두 떨쳐버리고 밝은 내일을 열어나갈 운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본인을 믿어주는 만큼 상대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최선을 보일 때 최상에 길이 될 듯.</p>	<p>▶<b>신세</b> 아무리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혼자 해낼 수 있는 대단한 끈기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 반드시 즐거운 삶의 행운이 올 것이니 2, 8, 11월생 안내하라.</p>	<p>▶<b>음세</b> 재너가 많다고 문제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리다고 방심하지 말고 관심을 두고 자주 대화하고 정을 쏟으라. 사업은 지나치게 금전에 신경 쓰지 말고 적은 것을 이용해서 큰 것을 얻도록 하라.</p>
<p>▶<b>신세</b>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결실할 시기다. 더욱 분발하고 현실에 충실하면 좋겠다. 남의 눈치만 보면서 움츠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라. 사, 자, 오 성씨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교제하는 일이 있으면 길한 날.</p>	<p>▶<b>음세</b> 신숙은 없으면서 소문만 거창하다. 배우는 자세로 견문을 넓히고 내실을 기하라. 애정으로는 연상이나 연하의 상대가 유혹이 많아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은 배필 아닌 배필로 인해 신중하고 있구나.</p>	<p>▶<b>신세</b> 어수선한 일들은 정리하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마저 놓치게 된다. 하나도 아니고 무질서한 이성교제는 3, 7, 9월생으로 새웃을 입은 채 비를 맞는 격.</p>